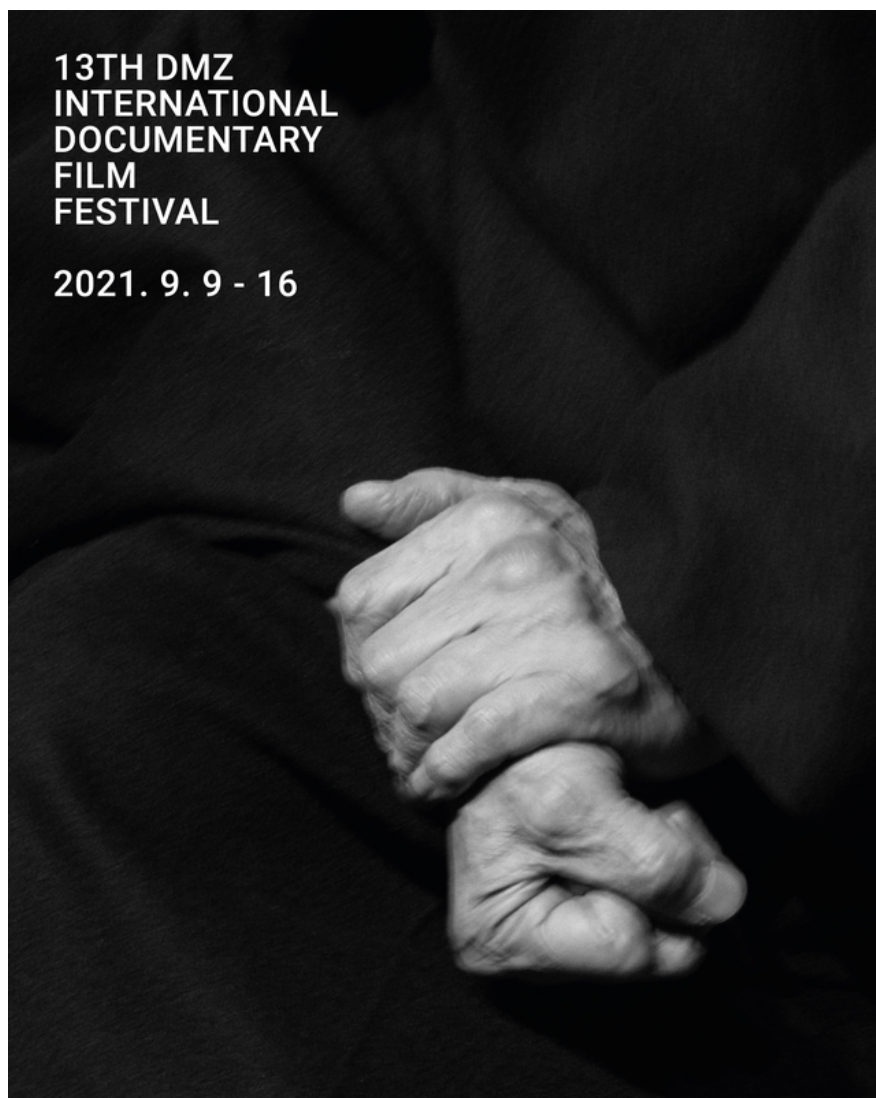


공1값1연1론 뉴시스

NEWSIS 수도권 > 경기남부**DMZ국제다큐영화제, '칸 독스' 협력 영화제로 참여... 2년 연속**

프랑스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마켓 '칸 독스'와 업무협약
 아시아 영화제로는 유일하게 협력 영화제로 참여

등록 2021-07-06 09:15:0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Docs) is a Korean film festival for documentaries, jointly presented by Paju and Gyeonggi in Gyeonggi Province. The 13th DMZ Docs will take place on 9th-16th September 2021.
 DMZ Docs is the largest film festival for documentaries in Asia. The festival primarily focuses on introducing documentaries from Asia and puts the spotlight on outstanding works all around the world. DMZ Docs also hosts DMZ Industry to support documentary filmmakers across Asia and discover promising projects to present to the world.
 DMZ Docs will continue to promote outstanding Korean and Asian documentaries overseas, and help build a greater audience for documentary films.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산업 교류 플랫폼인 '칸 독스'(Cannes Docs)의 협력 영화제로 2년 연속 참여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칸 독스 측과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칸 독스는 6~12일 프랑스 칸 영화제 기간 개최되는 다큐멘터리 마켓으로, 전 세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가 교류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함께 파트너 영화제로 참여하는 곳은 셰필드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CPH:DOX) 등 세계 유수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아시아에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유일하다.

파트너 영화제로 참여하면 '독 토크(Doc Talk)'라는 제목의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아시아 대표 영화제와 함께하는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알리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비전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칸 독스 내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Spotlighted Project)' 프로그램에서 유망한 국내 다큐멘터리인 남아름 감독의 '애국소녀'를 선보인다.

DMZ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 작품은 지난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진행한 DMZ인더스트리(산업 교류 프로그램)에서 공개돼 국내외 산업 관계자의 호평을 받았다. 감독 본인의 부모님을 통해 애국신화의 모순을 발견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다큐멘터리로, 많은 해외 영화인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9~16일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MZ인더스트리는 9월13~16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